

호주와인과 중국...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중국 베이징의 한 와인 매장에서 직원이 호주 와인을 진열하고 있다. 최고 200%를 넘는 '관세폭탄'이 부과되기 전인 2020년 당시로 진열대 양쪽이 모두 호주 와인으로 가득차 있다. /와인스펙티어

“판매와 마케팅 확대를 위해 중국 고객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WE는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폐할 경우 펜폴즈 빈 시리즈와 아이콘 와인인 그랜지를 다른 수출 시장에서 중국으로 다시 배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혼 법정까지 갔던 부부가 하루 아침에 없던 일처럼 사이가 좋아지긴 힘들 터. 재결합이 해피엔딩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이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호주 와인의 수입이 부진한 사이 미국 와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남호주의 한 와인메이커는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호주 와인 산업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와인너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 헐뜯었다. 소송전도 불사했다. 시간의 간극은 컸고, 그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웬 주말 드라마인가 하겠지만 다름아닌 호주 와인과 중국의 이야기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2021년 3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실제로 적용했다. ‘관세 폭탄’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언급한 호주에 대한 일종의 무역 보복이었다. 당시만 해도 호주는 와인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던 때였다.

늘어난 세금만큼 비싸진 가격에 중국에선 호주 와인을 찾는 이들이 없어졌다. 2020년

중국으로의 호주 와인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지만 작년엔 81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호주 와인업계 입장에서 그야말로 핵폭탄급 타격이었다. 호주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업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98개에서 117개로 급감했다. 남아돌아 저장 중인 와인만 올림픽 수영장 859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2024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와인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호주는 대환영이다. 호주와인협회는 “그간 호주 와인너들은 중국 내 수입업자와 바이어, 소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왔다”며 “중국 내에서 호주 와인에 대한 무역 업계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호주 최대 와인너리리 국보 와인 펜폴즈를 가지고 있는 TWE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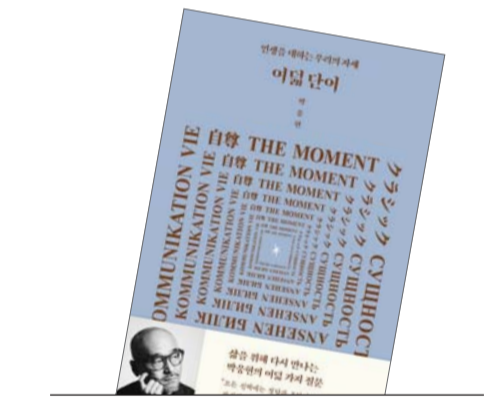
남의 답 아닌 ‘나만의 답’ 찾기

웹서핑을 하다가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했다. 내용이 참 허무했다. ‘이런 거 안 찾아봄ㅋㅋ’ 글 작성자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향상’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정신과의사 윤희균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100만부 이상 팔리며 이제는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자존심은 강한테 자존감은 낮은 사람’, ‘아들, 딸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열심히 살아도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등 제목에 ‘자존감’이 들어간 유튜브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백 만건에 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체 자존감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리도 집착하는 것일까. 광고인 박웅현이 쓴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저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라는 생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답한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 각자



여덟 단어
박웅현 지음/인티

가 가진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꼬집어내기 보다는 비껴에 기준점을 두고 맹렬히 쫓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명문 중학교, 특목고, 일류 대학, 좋은 직장, 엄청난(엄마 친구 아들)을 따라가게 우리 교육이다”며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고,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한국인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며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비껴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기에, 남의 답이 아닌 자신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책은 조언한다.

272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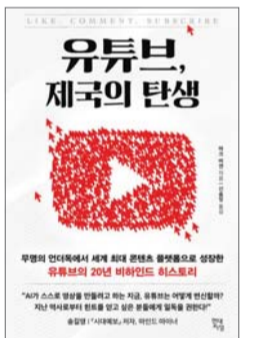
유튜브, 제국의 탄생

마크 베건 지음/신승원 옮김/현대지성

유튜브의 하루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에 달하며, 해당 플랫폼에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세 명의 젊은이가 장난같이 시작한 무명의 동영상 사이트는 현재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책은 유튜브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규제 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을 취재해 언더독 스타트업이었던 유튜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한 초거대 테크 기업이 됐는지 낱알이 까발린다. 저자는 유튜브가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광기와 중독의 콘텐츠 플랫폼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한다.

560쪽. 2만5000원



인플루언서 탐구

올리비아 알람 지음/김지선 옮김/소스텍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SNS에 뿌린다. 오늘 누구와 뭘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 지 등 매일 자신의 사생활을 생중계한다. 온라인상에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고도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인기 있는 이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만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온라인상의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최고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 건당 120만달러를 받고, 장난감 언박싱 등으로 인기를 모은 라이언 카지는 2020년 광고 수익으로 29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소셜 미디어 스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에 울고 웃는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다룬 책. 448쪽. 2만3000원.



달라붙는 감정들

김관옥 외 4명 지음/의료인류학연구회 기획/아몬드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비극들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남겼을까. 인류학자인 저자들은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끈적하게 엉겨 달라붙는 감정이나 정서를 ‘정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추적한다. 책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정동은 ‘무관심’과 ‘무

기력’이라고 진단한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사건들 위에 새로운 비극이 포개지고 진상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반복해 목격하는 동안 이 같은 감정과 정서를 학습했다는 것이다. 책은 무심함이 어떻게 무자비함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복원해야 할 애도와 돌봄이 무엇인지 밝힌다.

225쪽. 1만7500원.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중증치매환자 위한 전담병원 운영
▲日후쿠시마 앞바다서 규모 6.0 지진... 지진해일 우려·원전 이상 없어 /사진 뉴시스

▲‘수천만 달러 분쟁’ 디즈니, 행동주의 투자자 대결서 압승
▲나토 수장 “7월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오늘 외무장관 회의 참석”



▲美재우 “中, 배터리·전기차 과잉생산 초래...추가 보호조치 가능”
▲대만 강진 9명 사망·1050명 부상...전기·수도 공급 회복 중 /사진 뉴시스